

# 작업장선 폭력·폭언...사회에선 차별·혐오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5만명  
우리의 '이웃' 맞습니까

<중> 한발도 못나간 노동인권

#. 지난 2018년 도라지와 인삼을 재배하는 영암 한 농가에서 일하던 네팔인 아마네(31·가명)씨는 고된 노동으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겪다 사업주에게 병원 진료를 요청, 몇 차례 통원진료를 받았다.

아마네씨는 허리 통증이 쉽게 낫지 않아 병원 치료를 재차 요청했다가 업주가 휘두르는 폭력에 부상을 입었다.

사업주는 아마네씨 집을 내던지고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기까지 했다. 아마네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마네씨는 사업장에서 쫓겨났지만 무단 이탈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불

병원진료 요청했다고 폭력 56% “노동현장 차별 경험” 생명 앓아간 산재사고 잇따라 공무원 1명 478개 사업장 관리 인권침해 사례 파악도 못해

법체류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금속제단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헤만트(27·가명)씨는 지난 2017년 9월, 공장장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허리·어깨가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 한 것이 이유였다. 공장장은 재차 병원 진료를 요청하는 헤만트씨에게 공사장에 있던 철근까지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해남 김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살인적인 수준의 노동 강도, 열악

한 처우와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했다. 이들은 새벽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거친 바다에 나가 15시간에 이르는 고된 노동을 했고, 사장 가족의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불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먹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하는가 하면,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해도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만 그럴까. 여전히 사업주와 직장 동료의 차별적 시선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외국인들의 하소연은 외국인 노동자 급증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킹이 이주노동자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실태조사서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56.6%가 차별을 경험했다. 차별의 유형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시킨다는 취지로 답한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다.

월급(32.5%), 숙소(26.3%)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한 차별을 겪었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았다. 특히 국내 농수산업 등을 맡아서 떠받치고 있는데도, 한국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부재와 전통적 인식 등으로 공장 근무자(53.1%)보다 농어촌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65.4%)이 훨씬 더 많았다.

지난 28일 광주시 광산구 캄보디아공동체 전남광주지점에서 만난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 목소리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희망을 갖고 온 한국에서 접하는 절망과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평소 정장을 즐겨입는다는 네이르(30·캄보디아)씨는 “백화점에서 정장을 사려는데, 나한테는 안판다며 나가라고 했어요”라며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팔지 않겠다는 상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점원들은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반말을 해요”라고 지적했다.

세인(26·캄보디아)씨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듯 해 쓸쓸하다”면서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한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인도네시아인 인드로(22·가명)씨는 왜 택시를 탈 때마다 외국인 차별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택시를 타자마자 만원을 내라고 하질 않나, 요즘이 만원이 안 나왔는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고도 줄을 잇고 있다. 안전 장비·수칙도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미안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10일 밤 여주시 묘도동 인근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케도차 바퀴에 깔려 숨졌고 지난 3월에는 순천 자원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압축기 작동 과정에서 숨졌다.

지역 노동전문가들은 사업주 선의에 맡

기고, 사고 후 표본 사업장만 감독하는 현 수준의 정책 방향으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달 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장은 광주 724곳, 전남 3954곳 등 4678곳. 이들 사업장을 돌면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살펴보는 담당 공무원은 10명이 전부다. 그나마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업주의 자율점검만 이뤄진 상태다.

공무원 한 명이 평균 478개의 사업장을 지도·감독하는 상황,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해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영대 광주민중의집 대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노동부의 인력이 턱 없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인력증원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한국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한 인권교육 등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풍에 공사장 가림막 붕괴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관계자들이 강풍에 떨어져 나간 가림막을 보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전남 학부모·도민 “전남교육 핵심 과제는 안전한 학교 조성”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 2위

전남 지역 학부모와 도민들은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전남 교육의 핵심 과제로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역 학부모 700명과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61%p)에 따르면 장석웅 도 교육감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집중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6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36.4%), ‘교육복지 강화’(26.7%)를 선택했다.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인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한다’(61.8%)는 긍정 평가가 “만족하지 않

다”(22.0%)는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투명한 예산집행, 깨끗한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만족한다”(60.5%)가 ‘불만족하다’(18.8%)보다 높았다.

‘안정적인 교육행정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소극적 교육행정’(22.2%), ‘교육예산 부족’(21.5%), ‘도의회 및 지자체와의 소통문제’(16.0%),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부족’(12.3%) 등을 들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올해는 수학여행 못간다

광주교육청 코로나 여파 취소

올해 광주 초·중·고 학생들은 단 한 번의 추억인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됐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30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보류했던 수학여행을 올해는 완전히 취소하기로 했다. 감염병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학부모의 75%가 수학여행에 반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 6학년, 중학 1학년, 고교 1·2학년은 평생 한 번뿐인 추억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사라졌다. 올해

최소한 수학여행은 학사일정과 재정 때문에 내년에 진행하거나 긴급해서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수학여행 취소를 아쉬워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수학여행은 갈 수 없지만 현장체험학습은 학교별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결정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시 교육청이 지난주 페이스북에 수학여행 취소 카드 뉴스(공보관실 홍보부 책임자)를 띄우자 700여 명이 댓글을 달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련 카드 뉴스에 ‘좋아요’ 372명, ‘화

난다’ 152명, ‘눈물난다’ 68명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수학여행마저 취소하다니 우울하다.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정담을 나누고 추억을 쌓을 기회가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수학여행 취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번뿐인 추억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아쉬움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전남대병원 “병문안 자제해 주세요”

코로나 재확산 방문 통제 강화

전남대병원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문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60대 자매부부를 포함한 다수의 확진자가 최근 발생하는 등 2차 유행의 우려 속에서 ‘병원 감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철저한 출입 통제에 나섰다. 특히 무증상 확진자의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니면 병원출입을 금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 전남대병원 내방객 수 분석 결과, 토요일 평균 내방객이 각각

630여명 씩으로 평균 330여 명인 평일보다 무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대 자매부부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이전까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발생이 비교적 적어 경계심이 다소 느슨해 진데다, 사회적 홍보 부족으로 병문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병동 출입구 및 원내 곳곳에 ‘병원출입 제한’ 홍보물을 부착하고, 원내 방송 등을 통해 방문 자제를 수시로 알리고 있다. 또 병문안을 못하고 돌아가는 내원객들에게 비대면 방법 중 하나인 휴대폰 영상통화를 권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문체부와 도청복원 업무협약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및 옛 전남도청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손을 잡는다.

지난 30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1일 진상조사위와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문체부 장관, 옛 전남도청 복원단, 진상조사위 위원장 등 총 11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보유 및 획득 자료 상호 활용 및 지원 ▲생산된 자료 상호 분석 및 교차 검증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 062-412-2800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